



# “헌법에 반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법안 폐기해야”

신문협회, 문체부에 반대 의견 전달 ... “표현 자유 침해·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 위험 소지”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2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안·윤준병 의원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제·개정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대해 언론보도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및 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한 것과 관련, 신문협회는 “헌법 제21조 2항은 표현물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후적 규제 수단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개정조항은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

다. 신문협회는 “현행 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주로 『제조물 책임법』, 『하도급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거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영역에 도입돼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예훼손 및 표현의 영역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사법 체계의 기본 정신인 ‘실손해 배상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할 경우 이중 제재가 돼 헌

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또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법률로 추정하는 개정안 제44조의 11은 고의 입증책임을 사실상 행위자에게 전가해 책임주의·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취재원 노출과 공익제보 위축 등 저널리즘의 핵심 기능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언론의 위축’을 노리는 권력층의 ‘전략적 봉쇄 소송’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입막음 소송’이라 불리는

‘전략적 봉쇄 소송’은 애초에 승소가 소송의 주목적이 아니라 언론사에 비용 부담이나 정신적 압박을 가해 후속 보도를 막거나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의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은 실효성이 낮아 실제 남용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게 신문협회의 의견이다.

끝으로 신문협회는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할 위험이 크므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신문협회, ‘신문홍보 만화·영상 공모전’ 수상자 선정

신문협회는 지난 12일 ‘2025 신문홍보 만화·영상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신문의 사회적 기능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신문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신문홍보 만화 공모전

신문홍보 만화 공모전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각 부문별로 대상과 우수상이 선정됐다. 대상은 한린(서울대치초 6학년), 표서현(강릉관동중 3학년), 권나원(포항동지여고 1학년), 김은솔(덕성여대 1학년) 학생이 각각 받았다. 강효유(서울북성초 4학년), 김윤하(강릉관동중 3학년), 전영인(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정예원(숙명여대 3학년) 학생은 부문별 우수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주제 의식, 구성, 독창성과 완성도를 기준으로 수상작을



신문홍보 만화 공모전 초등부 대상 작품

영상 공모전 대상 작품

선정했다”며 “특히 올해는 초등부 응모작이 많아 ‘미래 세대의 신문에 대한 인식 제고’라는 공모전 취지에 부합하는 공모전이였다”고 밝혔다.

초등부 대상을 수상한 한린 학생은 초등학생다운 접근법과 완성도 높은 표현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등부 대상을 받은 표서현 학생은 “그림만큼이나 문자가 중요한 만화라는

장르에서 응모작 중 가장 완결성 높은 문장을 완성했다”는 평을 받았다. 고등부 대상을 수상한 권나원 학생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재치 있게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학부 대상 수상자인 김은솔 학생은 “각 컷을 한 장의 독립적인 일러스트 작품처럼 구성해 집중도를 높인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 신문홍보 영상 공모전

신문홍보 영상 공모전 대상은 최미성(충남 공주) 씨가 응모한 ‘진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창입니다’가 뽑혔다. 우수상은 고원기(서울 송파) 씨의 ‘오늘부터 신문을 곁에 두세요. 일상이 뉴스로 가득 찹니다’와 권소희(경기 수원) 씨의 ‘한 번에 살펴보는 신문의 기능 5가지’가 각각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신문이 지니는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해 다채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흥미로운 영상들이여 몇 작품됐다”고 설명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진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창입니다’는 “신문을 활용해 종이접기, 오려 붙이기 등을 선보여 시각적으로 탁월하면서도 신문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전달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만화 공모전 부문별 수상자에



신문홍보 만화(사진 위쪽)와 영상 공모전 심사위원들이 지난 10월 31일과 11월 5일 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출품작들을 심사하고 있다.

는 상패와 함께 대상 각 100만 원, 우수상 각 50만 원이 지급된다. 영상 공모전 수상자는 상패와 함께 대상 200만 원, 우수상 각 100만 원을 받는다. 만화·영상 공모전 수상작품은 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볼 수 있다.

### 2026년 한국신문상 공모

접수 마감은 내년 1월 30일

신문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6년 ‘한국신문상’ 후보를 공모한다. 한국신문상은 뛰어난 취재·보도활동으로 한국 신문의 발전과 언론 창달에 기여한 언론인을 표창

하기 위해 마련한 상이다.

공모대상은 뉴스취재보도와 기획·탐사보도 두 부문이며, 2025년 1~12월까지의 공적(신문 보도)이다. 각 부문별 최대 2건(재경 1건 지역 1건)을 선

정한다. 공모접수는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추천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공적 자료와 함께 웹하드(www.webhard.c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마

감은 내년 1월 30일까지다. 수상자는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을 각각 받는다. 심사 및 발표는 내년 3월에, 시상식은 4월 7일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다.

신문홍보 만화 · 영상 공모전 대상 수상소감

신문홍보 만화 공모전 대상

“신문 읽기,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의 자연스러운 습관”



초등 부문

한린

서울대치초 6

저는 엄마의 권유로 처음 신문을 접했습니다. 회색 종이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서 어렵고 지겨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읽어 보니 짧은 기사들도 많고 만화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전자 기기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나와 있어서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한자에 흥미가 많아서 단어

를 한자로 찾아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신문이 한자로 ‘新文’이 아니라, 예상외로 ‘新聞’, 즉 ‘새로운 소식을 듣는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님들이 열심히 취재하신 새로운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신문이라고

생각하니, 신문이 좀 더 쉽고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공모전 작품에 이러한 저의 생각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특히 신문 읽기가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수 있음을 짧은 만화를 통

해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며 만화를 완성했습니다. 곧 제 생일인데 대상이라는 큰 선물을 받게 돼 기쁩니다.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선생님과 제작품을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신문 속 작은 글자, 생각·가치관 바꾸는 큰 힘 담겨”



중등 부문

표서현

강릉관동중 3

이번 신문홍보 만화를 구상할 때, 사람들의 생활 속 다양한 신문의 역할

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조그마한 글자들로 이루어진 신문이라는 매체에는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 마음을 뒤바꿀 수 있는 큰 힘이 깃들어있단 걸 느꼈습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신문의 특성을 만화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신문 매체를 많이 접하지 않아 신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힘들었고, 그림을 좋아하지만 만화 형태로 그려본 경험이 적어 내용을 네 컷 안에 어떻게 배

치해야 할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게 이번 공모전에 대해 알려주고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영감을 주었던 후배와, 공모전을 함께 준비하며 피드백과 긍정적인 칭찬을 해주었던 친구가 많은 도움이

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작품을 직접 창작하고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뿌듯함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 신문에 대한 즐거운 추억과 관심도 생겼습니다. 귀한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홍보 만화 통해 누군가 신문을 다시 읽는 계기 되길”



고등 부문

권나린

포항동지여고 1

저는 학급에서 총무를 맡아 매일 아침 교실에 신문을 비치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레 신문에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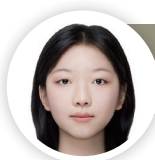
심이 생겼습니다. 신문에 대한 관심은 신문 읽기로 이어졌고, 어느 때처럼 신문을 읽다가 신문홍보 공모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읽으면 느꼈던 매력을 어떻게 4컷 만화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평소 신문을 읽을 때 친

구들이 “넌 신문을 왜 읽어?”라고 물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신문을 좋아하는 친구는 사실 저를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신문을 왜 읽느냐는 친구들의 물음에 신문의 장점을 설명하며

느꼈던 신문의 매력을 4컷 안에 최대한 많이, 자연스럽게 담고자 했습니다. 이 작업은 가장 어려웠지만, 동시에 가장 즐거운 과정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정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듯이, 제 작품이 누군가가 신문을 다

시 읽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깊은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문을 통해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깊이 있게 생각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사고할 여유’…숯폼에는 없는 신문만의 매력”



대학 부문

김은솔

덕성여대 1

저를 포함한 20대, 이른바 MZ세대는 ‘뉴스 없는 세대’라 불립니다. 그마저도 포털이나 유튜브의 숯폼

뉴스를 더 자주 접하는 상황에서, ‘종이신문의 가치’를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이기에 오히려 종이신문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발

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화에서 그려낸 실속 없는 가짜 뉴스나 자극적인 댓글, 시선을 빼앗는 팝업광고 속 느낀 피로감은 실제 저의 경험을 녹여낸 것입니다. 반면, 종이신문은 정보의 신뢰성을 항상 의심할 필요도, 타인의

의견에 휘둘릴 일도 없습니다. 잠시 멈춰 스스로 사고할 여유를 주는 매체라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디지털 시대에 신문 속 긴 활자를 읽고 사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문은 여전히 종이매체만의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신문이 ‘도태되는 매체’가 아니라, 사회의 진실을 담고 ‘생각하는 법’을 일깨우는 매체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신문홍보 영상 공모전 대상

“신문에 얹힌 추억을 영상으로 표현하며 가족의 소중함 되새겨”



최미성

충남공주

신문홍보 영상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신문이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우리 가족의 기억과 감

정을 담아내는 매개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대본을 쓰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 가족과 만들었던 모자와 배, 딱지 하나하나가 단순한 종이기가 아닌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

기억을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할지 고민하면서, 단순한 추억이 아닌 세대를 잇는 이야기로 확장해 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짧은 숏츠 안에 감성과 메시지를 모두 담아내야 했기에, 장면 구성과 내레이션의 톤, 음악 선택까지 하

나하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감정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가족을 더 이해하고 깊이 공감할 수 있었

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영상 제작을 넘어, 저에게는 가족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신문이라는 매체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앞으로도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 ‘지역 속으로’… 발로 뛰며 지역민 삶 생생하게 조명

## 4개 지역 회원사, ‘2025 지역신문 컨퍼런스’ 우수사례 선정



- 대상** 광주일보 6월 11일자 1면  
‘물길 끊긴 어도, 생태계도 끊겼다’
- 금상** 인천일보 9월 1일자 1면  
‘섬, 하다’
- 은상** 경기일보 5월 8일자 1면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추적기’
- 동상** 매일신문 8월 22일자 8면  
‘재난 이후, 끝나지 않은 고통’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충북 청주에서 ‘로컬리즘, 연대와 공존’을 주제로 ‘2025 지역신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제18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기획탐사 △참여밀착 △창의혁신 △신진기자 분야에서 총 24건의 지역신문 우수사례가 본선에 올랐다. 이날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광주일보의 ‘물길 끊긴 어도, 생태계도 끊겼다’가 뽑혔다. 금상은 인천일보의 ‘섬, 하다’, 은상은 경기일보의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추적기’, 동상은 매일신문의 ‘재난 이후, 끝나지 않은 고통’이 각각 수상했다. 4개 회원사의 사례를 소개한다.

**광주일보 불량 어도 실태 고발…생태 보전 중요성 강조**  
광주일보의 〈물길 끊긴 어도, 생태계도 끊겼다〉 보도는 지역 하천에서 수중 생물의 이동을 돕는 생태 통로

인 어도(魚道)의 기능 상실이 곧 생태계 연결의 붕괴로 이어진 현실을 다뤘다. 취재를 맡은 김진아 기자는 3개월에 걸쳐 직접 광주·전남지역의 불량 어도 114곳을 일일이 찾아가 점검하고 실태를 고발했다.

김 기자는 총 6편의 보도를 통해 물이 흐르지 않는 어도, 쓰레기가 쌓여 길이 막힌 어도, 구조물 파손으로 통로 기능을 상실한 어도 등 설계와 유지관리 전 과정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또 해양수산부가 2026년부터 개·보수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독 보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 확보 방안 마련과 일괄 정비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천일보 섬 주민 이야기로 지역 공동체 공감 불러일으켜**  
인천일보의 〈섬, 하다〉 보도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다뤄졌던 인천 앞바다 섬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아카이브한 지역 탐사보도다.

양진수 기자 등 6명으로 특별취재팀은 섬을 차려로 찾아가, 섬이 지닌 환경과 산업, 주민의 삶을 장기적으로 기록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유일한 해남(海男)인 백령도 유일한 해남 윤학진씨, 대이작도 주민 밴드 ‘풀등’ 등 섬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섬의 흔적을 조명했다.

또한 ‘섬, 하다’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만들어, 텍스트와 사진, 영상, 오디오를 모아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했다. 독자는 클릭 한 번으로 섬에 입도하고,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 특히 섬별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일러스트 지도를 함께 제공해 독자들이 각 섬의 이야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기일보 지역선거 공약 이행 실태 파악…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확인**

경기일보의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추적기〉 보도는 경기도 광역의원들의 지역 맞춤형 공약 이행 현황을 전수 조사한 기획이다.

이호준 기자 등 4명으로 구성된 경기알파팀은 경기도 광역의원들의 저조한 공약 이행률을 짚어냈다. 또 과거와 현재의 공약 내용, 이행 실태 등을 비교하며 접근성과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해당 보도는 지난 5월 처음 공개돼 시민이 지방선거 공약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도 2주 만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해 세부 공약을 공개하는 등 제도적 변화를 이끌었다. 각 정당에서는 공약 이행 실태를 공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일보는 충청·호남·영남권 지역지와 함께 전국 최초 ‘지방의원 공약추적단’을 출범시키며 지역정치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매일신문 재난 제도의 허점 밝히고 제도 개선 등 이끌어**

매일신문의 〈재난 이후, 끝나지 않은 고통〉 보도는 태풍·지진·산불·산사태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 21명을 심층 인터뷰한 시리즈다.

이 보도는 총 6편의 시리즈로, 1편부터 4편까지는 재난의 현장에서 삶을 잃거나 흔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5편과 6편은 제도적 허점과 복구 로드맵의 방향을 제시했다. 임재환 기자는 포항 태풍과 예천 산사태, 포항 지진, 울진 산불 등 수년째 발생한 다양한 재난 속에서 피해자들이 겪은 트라우마와 지원 제도 미비 현황을 심층 인터뷰와 전문가 제언을 통해 깊이 있게 다뤘다.

보도 이후 ‘재난 트라우마 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반향이 이어졌다.

## ‘언론과 AI의 공존’ KPF 저널리즘 컨퍼런스

한국일보 이성철 발행인, 르몽드 그룹 CEO와 대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은 지난 10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과 AI의 공존’을 주제로 ‘2025 KPF 저널리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세계 각국의

미디어 전문가들이 모여 △저널리스트의 역할과 정체성 △건강한 저널리즘을 위한 AI 기술의 활용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등을 모색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는 루이 드레퓔스 프랑스 르몽

드 그룹 CEO가 ‘AI와의 성공적인 공존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진 대담에서는 이성철 한국일보 발행인이 좌장을 맡아 ‘대형언어모델(LLM) 플랫폼과 언론사의 수익 창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 디지털협 ‘AI 기술과 뉴스의 미래’ 세미나 개최

11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신문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회장 신한수 서울경제 전략기획실 부국장)는 오는 20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AI 기술과 뉴스의 미래: 언론사를 위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언론사-AI 기업 간 협력방안과 뉴스룸의 AI 전환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언론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는 최민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전문위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주요 언론사의 AI 톨 개발 사례와 해외 미디어의 AI 활용 전략이 발표된다. 이어 언론과 기술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AI와 뉴스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한다.

＜프로그램＞	
＜사회＞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기조강연	최민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전문위원
＜세션1＞ 뉴스의 미래를 설계하다: 언론사와 함께한 AI를 개발하기	우승호 서울경제 미래전략부 부국장 강종구 한국일보 AI&데이터팀장 김시영 빅링크에이아이 대표
＜세션2＞ 해외 미디어의 AI 활용 및 뉴스룸 적용 사례	이정아 한겨레 미디어전략부장 정주원 매일경제 기자
＜패널토론＞ AI는 뉴스룸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김현지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사업전략팀장 이지영 영남일보 디지털콘텐츠 팀장 문창호 서울시스템 상무 유효상 양재미디어 상무



### “충청권 대표 신문사로 위상 공고히 할 것”

대전일보 창간 75주년 기념식

대전일보 (발행인 김재철)는 지난 11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창간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재철 발행인은 “창간 75주년은 대전일보의 생일이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날”이라며 “충청권 유일 네이버·카카오 콘텐츠 제휴사(CP)로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하

는 등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구독자 200만 명을 달성하고, 충청권 대표 신문사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며 “창간 80주년을 향한 여정의 출발점에 선 지금,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 신문협회 회원사, 2026 신춘문에 공모

신문협회 회원사들은 11월 말~12월 초 ‘2026년 신춘문에’를 공모한다. 공모 부문과 접수 마감은 아래 표와 같다. <11월 15일 기준>

구분	회원사	공모 부문	접수 마감
재경	경향신문	3개 부문(시, 단편소설, 문학평론)	11월 28일
	동아일보	9개 부문(중편소설, 단편소설, 시, 시조, 희곡, 동화, 시나리오, 문학평론, 영화평론)	11월 28일
	문화일보	4개 부문(시, 단편소설, 동화, 문학평론)	12월 3일
	서울신문	6개 부문(단편소설, 시, 시조, 희곡, 문학평론, 동화)	12월 1일
	세계일보	3개 부문(단편소설, 시, 문학평론)	12월 3일
	조선일보	8개 부문(시, 시조·동시, 단편소설, 동화, 희곡, 문학·미술 평론)	12월 8일
	한국일보	5개 부문(시, 소설, 희곡, 동화, 동시)	12월 1일
지역	강원일보	5개 부문(단편소설, 시, 동시, 동화, 희곡)	12월 3일
	경남신문	5개 부문(소설, 시, 시조, 수필, 동화)	12월 5일
	경상일보	6개 부문(단편소설, 시, 시조, 동화, 동시, 희곡)	12월 3일
	경인일보	2개 부문(단편소설, 시)	12월 4일
	광주일보	3개 부문(단편소설, 시, 동화)	12월 8일
	국제신문	4개 부문(단편소설, 시, 시조, 동화)	12월 4일
	매일신문	7개 부문(단편소설, 시조, 동화, 시, 동시, 수필, 희곡)	12월 4일
	부산일보	6개 부문(단편소설, 시, 시조, 희곡·시나리오, 아동문학, 평론)	12월 4일
	영남일보	2개 부문(단편소설, 시)	12월 4일
	전북도민일보	3개 부문(단편소설, 시, 수필)	12월 10일
	전북일보	3개 부문(단편소설, 시, 동화)	12월 5일

### 언론단체, 재난보도준칙 일부 개정

재난보도 피해 확산 방지 문안 추가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5단체는 재난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근 재난보도준칙을 일부 개정했다.

재난보도준칙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취재·보도에 대한 언론의 자정 노력과 윤리적인 보도 관행 정착을 위해 2014년 9월 5개 언론단체가 공동으로 제정했다.

언론단체는 “준칙 제정 후 10년이 지나면서 참사 현장 대응과 취재 기자들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준칙의 재정비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언론단체는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최근 ‘재난보도 피해 확산 방지 문안’ <표>을 마련하고 재난보도준칙 하단에 첨부했다.

재난보도 피해 확산 방지 문안
재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삼가 주세요. 재난을 겪은 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02-2204-0001(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1577-0199(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로 연락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기사는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하였습니다.

### 회원사 동정

대한경제, ‘2025 대한경제 건설대상’ 공모

대한경제(발행인 김상수)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격려하기 위해 ‘2025 대한경제 건설대상’을 공모한다. 올해 공모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을 비롯한 정부 포상이 다수 신설됐다. 시상 부문은 종합대상, ESG경영, 건축, 토목,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20여 개다. 접수는 오는 21일까지이며, 문의는 대한경제 편집국 (02-3485-8438).

부산일보, 해양문학 공모전 개최

부산일보(발행인 손영신)는 ‘부산일보 해양문학 공모전’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공모 부문은 해양소설, 해양시·시조, 해양수필 등 3개 부문이며, 기성문인·일반인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시상 부문은 △일반부 통합대상(1,000만 원)과 부문별 최우수상(500만 원) △청소년부·중고등부 최우수상(150만 원) 각 1명과 우수상(50만 원) 각 2명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12일까지이며, 문의는 070-5159-5447.

###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 기사 118건, 광고 70건 주의 결정

#### 신문윤리위 10월 심의 결과

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10월 20일 제1,001차 회의를 열고 신문협회 회원사의 기사 118건과 광고 70건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등 위반으로 각각 ‘주의’ 결정을 내렸다<표>. 심의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윤리위 홈페이지(www.ikp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9월 기사 및 광고 심의 현황

구분	건수	
	기사	광고
일간신문 및 통신	주의	118
	경고	0
온라인 신문	주의	70
	경고	0
온라인 신문	주의	229
	경고	0
온라인 신문	주의	58
	경고	3

#### 신문협회보

발행인 임채청  
편집인 정우현  
제작 한국신문협회  
발행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인쇄 삼아인쇄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등록번호 서울, 다50673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 2026년 한국신문상을 공모합니다

한국신문협회는 뛰어난 취재·보도 활동을 통해 한국 신문의 발전과 언론창달에 기여한 언론인을 표창하기 위해 한국신문상 수상작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 공모부문

- 뉴스취재보도 부문
- 기획·탐사보도 부문

#### ■ 공모대상

-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에 재직 중인 언론인으로 소속사 발행인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신청 건수에 제한 없으며 시상부문별 중복 추천 가능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공적(신문 보도)

#### ■ 구비서류

- 추천서 1부(소정양식), 공적자료 1부

※ 추천서는 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공적자료와 함께 웹하드 ‘한국신문상 공적자료’ 폴더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 ■ 시상

- 공모부문별 상패와 상금 500만원(각 부문별 최대 2건 시상)

#### ■ 접수마감


- 2026년 1월 30일(금) 17:00까지

#### ■ 시상일자

-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행사(2026년 4월 7일)

#### ■ 문의처

-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상 담당자 (02-722-4361)
- 웹하드(www.webhard.co.kr) ‘한국신문상 공적자료’ 폴더 (아이디 : presskorea / 비밀번호:2251)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